

ART BUSAN 2025

제14회 '아트부산 2025'가 5월 8일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11일까지 벡스코(BEXCO) 제1 전시장에서 열렸다. 전 세계 17개국 109개의 갤러리가 참여한 '아트부산 2025'는 갤러리와 작가, 컬렉터와 기관을 연결하는 아시아 대표 아트페어다.

평소 지인의 갤러리에서 다양한 예술작품을 즐기다가 이번 아트부산으로부터 받은 초청장은 반가움이 두 배였다. 부산이라는 도시가 주는 아름다움과 많은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한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뿌듯함 때이었다. 여기에 전시회 첫날만 날씨가 맑고 온화했기에 어떤 특별함까지 더해졌다.



벡스코 입구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였고, 전시장에 들어서자 각 섹션별로 늘어선 갤러리와 작품에서는 곧 시작할 분위기를 예열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올해는 작품을 메인(MAIN), 퓨처(FUTURE), 커넥트(CONNECT) 섹션으로 구분해 작품을 전시했는데, 부산과 바다 그리고 최근 배우고 있는 수영이 생각나서 그럴까.

바다, 푸른 빛 색감의 작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또한 한 작가는 자신이 만든 인공지능 로봇을 통한 페인팅 작업으로, 인간과 기계, 자연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드는 작품이 가장 인상깊었다. 이밖에도 이미징갤러리와 귀에 익은 갤러리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작품에선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박노경 콘텐츠마케팅팀 팀장

ART BUSAN 2025

퓨처섹션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작품을 소개한다.

FUTURE 섹션: 새로운 물결을 가져오는 이미징 갤러리 및 유망 작가를 조명하기 위한 섹션으로 설립 1년 이상 4년 이하 갤러리를 대상으로 한다.



임상빈(Sangbin IM)은 무수한 획을 통해 작품의 성질이 드러나는 작업으로 획 하나에서 오는 찰나의 현상계를 넘어 공간을 채워나가며 실제계에 다가선다. 그는 작품을 통해 시각과 촉각, 우연과 필연, 과정과 결과, 부족과 성취를 통해 사람 다음의 가치를 실현하는 예술의 승화작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NANO 갤러리는 예술의 가치를 '나'누고 '노'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충북권 최대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예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다.'라는 비전 아래, 미술 애호가들의 일상에 새로운 영감과 사유의 기회 제공과 작가의 창작활동을 긴 호흡으로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문화 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ART BUSAN 2025

커넥트 섹션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작품을 소개한다.

CONNECT 섹션: 부스 형식의 한계를 확장한 특별 전시 섹션으로 인터렉티브 아트, 퍼포먼스,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작가와 관람객 간의 접점을 만들어 새로운 경험을 확장한다.



신교명(Gyomyung Shin)은 기술이 인간을 넘어 인간이 사는 자연과 환경에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과 서로간의 계층과 질서까지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한다.

그가 만든 인공지능 로봇 '이일오'를 통한 페인팅 작업으로 인간과 자연 그리고 기술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탐구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형상을 구현해 낸다.

ROY 갤러리는 2022년 압구정점, 청담점에서 시작하여 2025년에는 도산공원 인근으로 까지 뛰어난 확장성으로 미술계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심도있는 연구와 교류를 통해 국내외 작가들을 적극 발굴하고, 실험적 장르를 포용하여 콜렉터와 미술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전시 경험을 제공한다.